

코스피	2570.70	코스닥	738.34
	(-34.22)		(-21.61)
금리 (미국 9년)	2.943	환율 (원/달러)	1377.50
	(+0.041)		(+2.30)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에 열린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 개관식에서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정현을 익산시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왼쪽 다섯번째부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용 오가노이드로 감염병 막고 수명연장

반려동물을 위한 바이오

(下) 첨단재생의료

플럼라인생명과학 PLS-D1000 노령견 타깃 의약품 국내 승인 유전자 검사로 맞춤형 헬스케어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연구소 반려동물용 재생치료제 개발 나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는 이제 단순한 치료제를 넘어, 반려동물의 질병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첨단 재생의료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대안으로 각광을 받던 오가노이드 기술은 이제 대체 기술을 넘어, 동물용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로 발전하고 있다. 동물용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사료와 건강 기능식품, 샴푸, 치약과 같은 반려동물용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되고 있다.

◆동물용 세포·유전자치료제 각광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플럼라인생명과학이 개발한 노령견 전용 혁신 신약 'PLS-D1000'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PLS-D1000은 전 세계 최초로 노령견 노화를 타깃으로 승인된 의약품으로, 반려견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된 치료제다. 노령견의 GHRH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인슐린 유사성장인자(IGF-1)를 조절, 노화로 인한 신체활동, 대사, 면역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라스메디는 지난 8월 반려동물의 전생애주기 동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개체별 맞춤 헬스케어 브랜드 '유비벳(UB Vet)'을 출시했다. 유전자 분석에 기반한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디스바이오시스 진단 키트' 등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에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를 열고, 반려동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RGB 연구소를 통해 인체 오가노이드를 동물용 오가노이드 기술로 확장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용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한 동물 의약품과 의약외품 신소재 평가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또한 지난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동물로 확장, 반려동물용 재생치료제 개발에도 나선다. 동물 오가노이드 기반 감염병 평가 모델을 개발해 동물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인간 중심 오가노이드 기술이 동물로 이어지면 더욱 빠른 속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용 의약품은 물론, 사료와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틀로 활용하거나, 인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물용 재생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 의약외품, 안전성 기준 필요

반려동물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도가 미래”… 현대차, 印 최대규모 상장

현대차, 인도 상장 공모액 4.5조 정의선 “전략적 수출허브로 육성 사회공헌활동 강화·지속적 투자”

“1996년 인도에서 시작된 현대자동차의 여정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인도 증시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더 흥미진진한 다음 장을 쓰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L)이 인도 증시 시장에 신규 상장하며 4조 5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는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인도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22일 인도 뭄바이의 인도 증권거래소(NSE)에서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법인 현지 증시 상장 기념식을 22일 개최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3만 2000원(1960루피)로 책정됐다. 주식 청약 마감 결과 공모 주식 수의 2.39배 청약이 몰렸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인도 증시 상장은 완성차 기업 중 두 번째이며,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 첫 상장이다. 상장을 통해 인도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왼쪽 세번째)이 현대차 장재훈 사장(왼쪽 두번째), 인도증권거래소(NSE) 아쉬쉬 차우한 최고운영자(CEO·오른쪽 세번째)등을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을 알리는 타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단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기념식에서 “인도가 곧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R&D 역량을 확장, 25만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선은 모디 총리와 면담에서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EV)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EV 충전망 구축 및 부품 현지화 등 인도 EV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첫 현지 생산E

V를 출시하며,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구축에 나선다. 기아도 내년 인도 공장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2030년 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권역을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인도 증시 시장에 상장한 현대차는 인도 국민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14억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지속하겠다”면서 “미래 기술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우리 노력이 이곳 인도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ns@

“영풍 시장교란 행위, 법적책임 물을 것”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기자회견 “공개매수 기간 무리한 소송·여론전 시장 혼란으로 영풍 공개매수 유인”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이 “MBK파트너스·영풍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서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박대표는 2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편법과 허위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MBK·영풍 연합은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했다”며 “마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협해 2차 가처분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억

지 주장을 퍼뜨려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MBK·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9월 13일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박대표는 이와 관련해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납득률 함으로써 고려아연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MBK·영풍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했다. <4면에 계속>

/차현정기자 hyeon@

메트로경제 ‘2024 제약·바이오’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판사 탄핵 추진에 고등법원장 “누가 법관하겠나… 삼가달라” /사진 뉴스스
▲ 한 총리, 인니 대통령에 방한 초청尹 친서 전달… “최대한 빨리 방문”

▲ 야 법사위원 “국감 동행명령장 거부, 김 여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 “촉구협회 사유화” “이기면 다해결?” 의원들 정몽규 없어도 난타



▲ 안철수 “명태군에 여론조사 의뢰하거나 공천 도움받은 일 없어” /사진 뉴스스
▲ 국회 환노위,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